

#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7월호

## Contents

I. 한일경제 동향 .....	2
1. 한일 무역 동향 .....	2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5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6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	9
1. 일본 무역 동향 .....	9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12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14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19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22
III. KJCF & KJE News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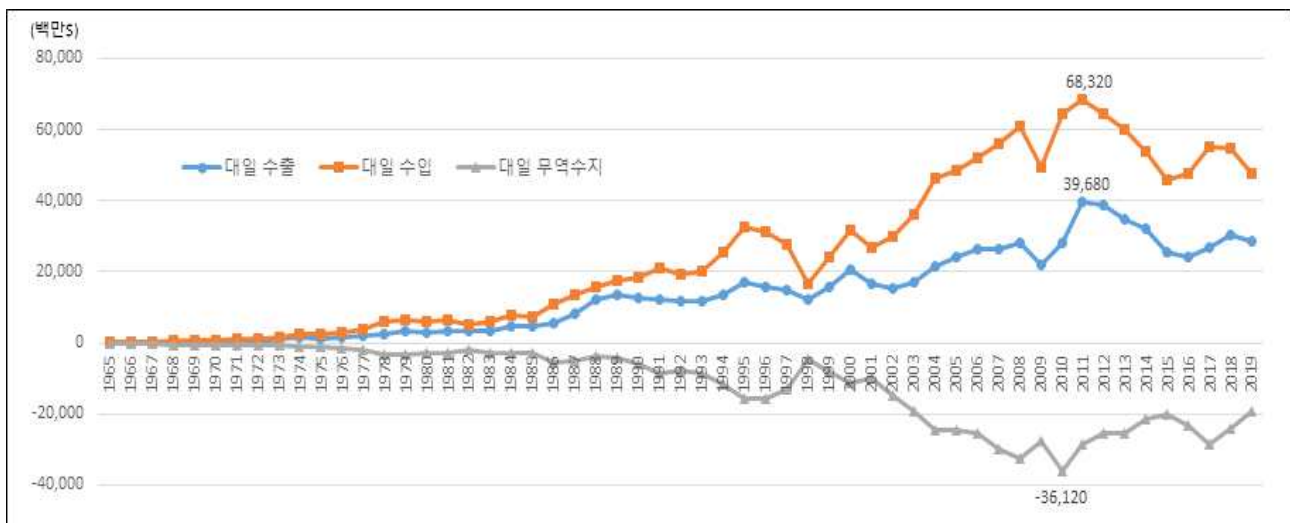
## I. 한일경제 동향

### 1. 한일 무역 동향

####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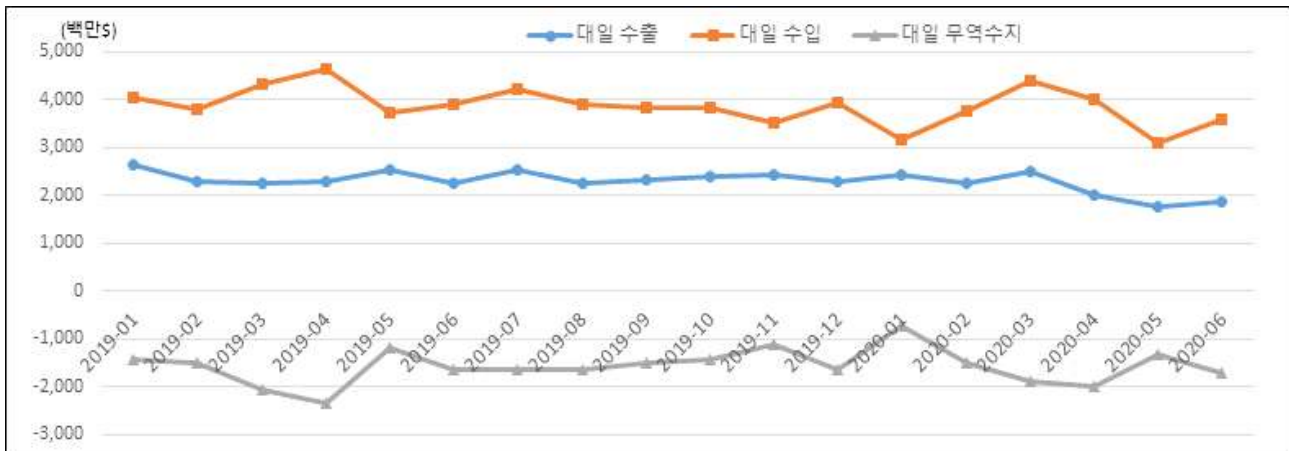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COVID-19 발생 이후 대일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에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4월과 5월 연속 감소하였다가 6월에 약간 증가하였음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4월과 5월에 감소하였다가 6월에는 다시 증가하였음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월에 감소 6월에 다시 증가하였음

## □ 한일 무역의 2020년 6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6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일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6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39,230	-10.9	35,598	-11.2	3,632
일본 부분	1,857	-17.7	3,572	-8.0	-1,715
일본 비중	4.7		10.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0년 6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10.9%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17.7% 감소하여 18.6억 달러가 됨

- 2020년 6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1.2% 감소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 작게 8.0% 감소하여 35.7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36.3억 달러로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7.2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전월 5.2%에서 4.7%로 감소하였고, 수입 경우는 전월 9.0%에서 10.0%로 증가하였음
- <표2> 및 <표3>은 주요 對日 수출 및 수입 품목의 6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쪽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감소 품목이 증가 품목보다 더 많았음

&lt;표2&gt; 한국의 2020년 6월 주요 對日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6월(백만\$, %)			2020년 6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256	-12.5	-1,627	1,857	-17.7	-1,715
1	철강제품	320	-0.7	-238	214	-33.1	-181
2	정밀화학제품	164	-5.1	-197	179	9.2	-143
3	광물성연료	297	-27.1	271	178	-40.3	160
4	전자부품	151	-11.0	-309	148	-1.9	-320
5	산업용전자제품	105	-19.7	-122	118	11.7	-123
6	농산물	95	-1.4	62	92	-3.6	75
7	금속광물	64	-22.6	28	89	38.7	54
8	석유화학제품	123	-39.1	-195	85	-30.7	-69
9	플라스틱제품	65	0.7	-121	76	17.3	-103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93	7.1	-10	72	-22.9	-52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lt;표3&gt; 한국의 2020년 6월 주요 對日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6월(백만\$, %)			2020년 6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882	-12.8	-1,627	3,572	-8.0	-1,715
1	전자부품	459	-13.8	-309	468	1.9	-320
2	정밀기계	303	-40.3	-257	447	47.8	-394
3	철강제품	558	-8.4	-238	395	-29.2	-181
4	정밀화학제품	360	-4.9	-197	322	-10.7	-143
5	산업용전자제품	227	-22.4	-122	241	6.4	-123
6	수송기계	229	14.0	-119	201	-12.2	-151
7	플라스틱제품	186	2.7	-121	179	-3.6	-103
8	기초산업기계	192	-22.4	-110	165	-14.0	-109
9	산업기계	172	-17.2	-93	155	-9.6	-96
10	석유화학제품	317	27.2	-195	154	-51.4	-69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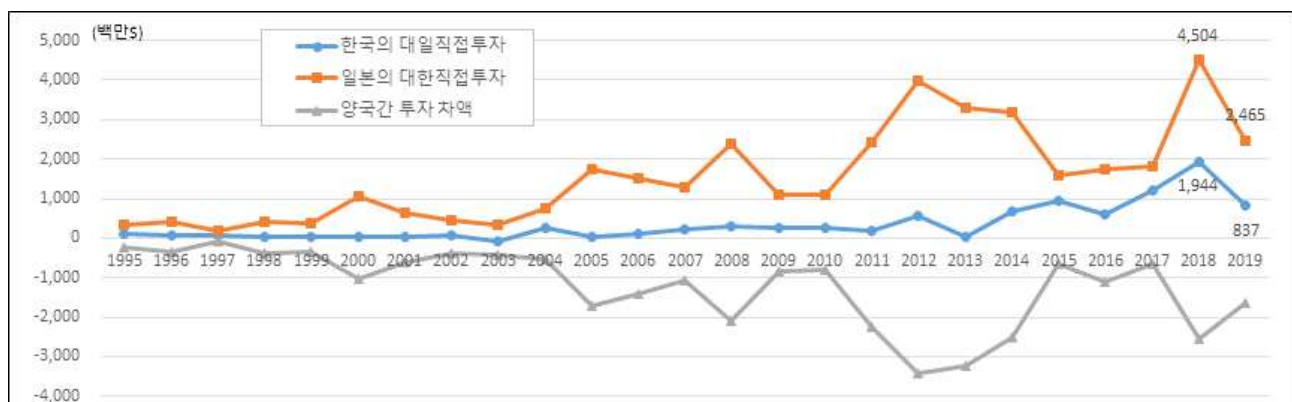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금속광물이 38.7%, 플라스틱제품이 17.3%, 산업용전자제품이 11.7%, 정밀화학제품이 9.2%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특히 광물성연료가 40.3%, 철강제품이 33.1%, 석유화학제품이 30.7%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주요 10개 품목 중 정밀기계가 47.8%, 산업용전자제품이 6.4%, 전자부품이 1.9% 증가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석유화학제품이 51.4%, 철강제품이 29.2%, 기초산업기계가 14.0% 감소하였음

##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22,890	3,569	15,642	-244	13,468	2,740
한국 부분(억¥)	95	39	122	28	15	50
한국 비중(%)	0.4	1.1	0.8		0.1	1.8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5월 13일, 6월 8일, 7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4월에는 15,642억 엔(실행 32,633; 회수 16,991)이었으나, 5월에는 13,468억 엔(실행 27,883; 회수 14,415)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4월 122억 엔(실행 155; 회수 33)에서 5월 15억 엔(실행 232; 회수 217)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에서 0.1%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4월에는 실행보다 회수가 더 많아 -244억 엔(실행 21,327; 회수 21,572)으로 마이너스가 되었으나, 5월에는 순투자가 2,740억(실행 21,658; 회수 18,918)으로 플러스가 되었음
-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의 대외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8억 엔(실행 211; 회수 182)에서 50억 엔(실행 53; 회수 3)으로 증가하였고, 한국 비중도 0.8%에서 1.8%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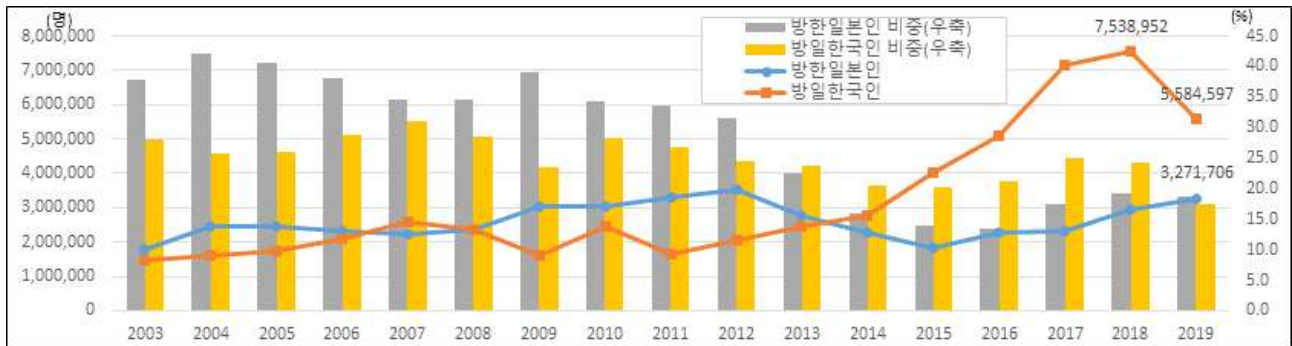
##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일한국인 수가 최근 COVID-19 영향으로 방일한국인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하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바뀜
- 방일한국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2월 143,896명, 3월 16,700명, 4월 300명, 5월 20명, 6월 100명 등으로 급감하는 감소추세를 보임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감소추세로 바뀜
-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등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임

##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6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6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6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6월	2020년6월	증감률		2019년6월	2020년6월	증감률
전체 (재외한국인포함)	1,476,218	36,943	-97.5	전체	2,880,041	2,600	-99.9
방한 일본인	282,476	498	-99.8	방일 한국인	611,867	100	-100.0
일본인 비중	19.1	1.3		한국인 비중	21.2	3.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 전체 수는 36,943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7.5%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498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8%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6월 19.1%에서 2020년 6월 1.3%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2,6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00.0%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6월 21.2%에서 2020년 6월 3.8%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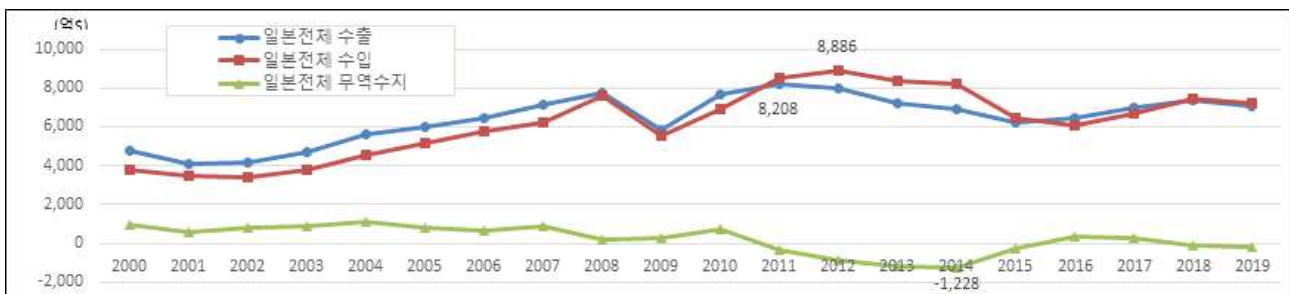
##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 1. 일본 무역 동향

####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 일본 무역의 2020년 6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6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6월 상황

	2019년 6월	2020년 6월	증감률
수출(백만¥, %)	6,585,087	4,862,034	-26.2
수입(백만¥, %)	5,996,977	5,130,858	-14.4
수지(백만¥, %)	588,110	-268,82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6월 26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26.2% 감소하여 4조 8,620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유, 자동차, 석탄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4.4% 감소하여 5조 1,309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의 경우 6월의 적자는 전월의 8,382억 엔에 비해 줄어들어 2,688억엔이 됨
- <표7>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6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표7&gt; 일본 무역의 2020년 6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b>총액</b>	<b>4,862,034</b>	<b>100.0</b>	<b>-26.2</b>	<b>5,130,858</b>	<b>100.0</b>	<b>-14.4</b>	<b>-268,824</b>	<b>-</b>
<b>아시아</b>	<b>3,018,645</b>	<b>62.1</b>	<b>-15.3</b>	<b>2,707,091</b>	<b>52.8</b>	<b>-6.0</b>	<b>311,554</b>	<b>-54.4</b>
중국	1,243,093	25.6	-0.2	1,389,352	27.1	0.8	-146,259	10.3
홍콩	294,713	6.1	-14.6	7,552	0.1	-77.5	287,161	-7.8
대만	396,893	8.2	0.4	231,958	4.5	0.8	164,935	-0.3
대한민국	350,626	7.2	-15.1	211,048	4.1	-15.8	139,578	-13.9
싱가포르	138,920	2.9	-27.7	79,557	1.6	15.8	59,363	-51.9
태국	155,479	3.2	-45.6	197,193	3.8	-16.7	-41,714	-
말레이시아	89,819	1.8	-27.5	138,267	2.7	3.2	-48,448	380.6
인도네시아	64,754	1.3	-56.0	111,517	2.2	-27.4	-46,763	616.3
필리핀	69,876	1.4	-30.2	77,280	1.5	-17.9	-7,404	-
베트남	128,288	2.6	-14.7	171,903	3.4	-12.8	-43,615	-6.6
인도	52,982	1.1	-51.8	37,969	0.7	-12.6	15,013	-77.4
<b>대양주</b>	<b>125,824</b>	<b>2.6</b>	<b>-29.5</b>	<b>329,592</b>	<b>6.4</b>	<b>-20.2</b>	<b>-203,768</b>	<b>-13.1</b>
호주	80,720	1.7	-41.8	273,296	5.3	-22.0	-192,576	-9.1
뉴질랜드	13,097	0.3	-46.7	26,176	0.5	-2.2	-13,079	493.2
<b>북미</b>	<b>765,392</b>	<b>15.7</b>	<b>-47.1</b>	<b>715,978</b>	<b>14.0</b>	<b>-8.9</b>	<b>49,414</b>	<b>-92.5</b>
미국	724,683	14.9	-46.6	600,021	11.7	-12.6	124,662	-81.4
캐나다	40,709	0.8	-54.8	115,453	2.3	17.2	-74,744	776.1
<b>중남미</b>	<b>169,615</b>	<b>3.5</b>	<b>-31.6</b>	<b>216,827</b>	<b>4.2</b>	<b>-3.5</b>	<b>-47,212</b>	<b>-</b>
<b>서유럽</b>	<b>517,259</b>	<b>10.6</b>	<b>-30.0</b>	<b>705,183</b>	<b>13.7</b>	<b>-10.9</b>	<b>-187,924</b>	<b>252.3</b>
독일	131,771	2.7	-29.9	174,070	3.4	-12.5	-42,299	288.3
영국	65,938	1.4	-51.0	43,065	0.8	-29.1	22,873	-69.0
프랑스	43,232	0.9	-27.0	70,755	1.4	-31.1	-27,523	-36.6
네덜란드	73,159	1.5	-34.0	20,253	0.4	-8.6	52,906	-40.3
<b>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b>	<b>101,028</b>	<b>2.1</b>	<b>-33.2</b>	<b>127,807</b>	<b>2.5</b>	<b>-29.7</b>	<b>-26,779</b>	<b>-12.3</b>
<b>중동</b>	<b>91,064</b>	<b>1.9</b>	<b>-48.1</b>	<b>254,415</b>	<b>5.0</b>	<b>-61.0</b>	<b>-163,351</b>	<b>-65.8</b>
<b>아프리카</b>	<b>73,207</b>	<b>1.5</b>	<b>-12.6</b>	<b>73,963</b>	<b>1.4</b>	<b>8.9</b>	<b>-756</b>	<b>-</b>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7월 20일)에 근거하여 작성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62.1%, 수입의 52.8%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3,116억 엔으로 54.4% 감소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5.6%, 수입의 27.1%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미미하게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中 무역적자는 1,463억 엔으로 10.3% 증가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8.2%, 수입의 4.5%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미미하게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649억 엔으로 0.3% 감소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7.2%, 수입의 4.1%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韓 무역흑자는 1,396억 엔으로 13.9% 감소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4.9%, 수입의 11.7%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美 무역흑자는 1,247억 엔으로 81.4% 감소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29.9%, 수입이 12.5%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51.0%, 수입이 29.1% 감소하였음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lt;표8&gt; 일본 무역의 2020년 6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가격	구성비	증감률
총액	4,862,034	100.0	-26.2	5,130,858	100.0	-14.4
1 식료품	64,844	1.3	-3.3	577,649	11.3	-1.4
2 원료품	73,115	1.5	-20.0	348,198	6.8	-5.7
3 광물성연료	45,181	0.9	-53.4	626,887	12.2	-48.7
4 화학제품	635,418	13.1	-14.2	723,916	14.1	9.6
5 원료별제품	550,346	11.3	-25.5	525,614	10.2	-8.1
6 일반기계	1,004,766	20.7	-24.5	607,769	11.8	2.6
7 전기기기	906,337	18.6	-18.5	852,884	16.6	-6.3
8 수송용기기	893,796	18.4	-41.1	111,233	2.2	-58.2
9 기타	688,233	14.2	-22.6	756,707	14.7	-7.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7월 20일)에 근거하여 작성

- 화학제품 수입과 일반기계 수입 항목만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음
- 수출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 일반기계(20.7%)가 24.5%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기기기(18.6%)가 18.5%, 수송용기기(18.4%)가 41.1% 감소하였음
- 수송용기기에 속하는 자동차, 자동차부분품, 이륜자동차 등의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49.9%, 52.3%, 45.8%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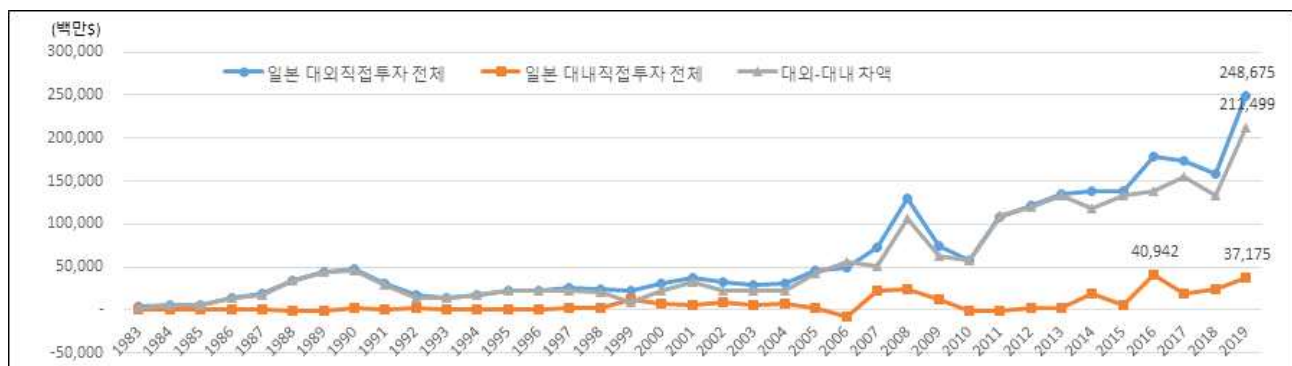
- 수입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 전기기기(16.6%)가 16.3%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14.7%)는 7.7% 감소, 화학제품(14.1%)은 9.6% 증가, 광물성연료(12.2%)는 48.7% 감소하였음
- 광물성원료에 속하는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1.8%, 43.9%, 54.0%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5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와 대내직접투자 모두 플러스를 달성하였음

&lt;표9&gt;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5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b>합계</b>	<b>13,468</b>	<b>100.0</b>	<b>2,740</b>	<b>100.0</b>
<b>아시아</b>	<b>4,178</b>	<b>31.0</b>	<b>261</b>	<b>9.5</b>
중국	1,324	9.8	350	12.8
홍콩	209	1.6	-89	-3.2
대만	264	2.0	21	0.8
한국	15	0.1	50	1.8
싱가포르	717	5.3	-69	-2.5
태국	580	4.3	1	0.0
인도네시아	273	2.0	-7	-0.3
말레이시아	146	1.1	3	0.1
필리핀	163	1.2	0	0.0
베트남	274	2.0	—	—
인도	159	1.2	1	0.0
<b>북미</b>	<b>4,143</b>	<b>30.8</b>	<b>1,017</b>	<b>37.1</b>
미국	3,600	26.7	1,010	36.9
캐나다	543	4.0	7	0.3
<b>중남미</b>	<b>434</b>	<b>3.2</b>	<b>-326</b>	<b>-11.9</b>
<b>대양주</b>	<b>441</b>	<b>3.3</b>	<b>161</b>	<b>5.9</b>
호주	431	3.2	157	5.7
뉴질랜드	0	0.0	1	0.0
<b>유럽</b>	<b>4,057</b>	<b>30.1</b>	<b>1,615</b>	<b>58.9</b>
독일	481	3.6	93	3.4
영국	349	2.6	-7	-0.3
프랑스	102	0.8	282	10.3
네덜란드	1,701	12.6	749	27.3
<b>중동</b>	<b>55</b>	<b>0.4</b>	<b>13</b>	<b>0.5</b>
<b>아프리카</b>	<b>160</b>	<b>1.2</b>	<b>-1</b>	<b>0.0</b>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7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13,468억 엔(실행 27,883; 회수 14,415)으로 플러스였지만, 전월 15,642억 대비 감소하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아시아(31.0%), 북미(30.8%), 유럽(30.1%) 등 세 개 지역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3,600억 엔(2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1,701억 엔(12.6%), 중국 1,324억 엔(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2,740억 엔(실행 21,658; 회수 18,918)으로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는 전월의 -244억 엔 대비 양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플러스인 국가는 미국(1,010억 엔), 네덜란드(749억 엔), 중국(350억 엔) 등이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순투자 금액이 마이너스인 국가는 중남미의 케이만 제도(-369억 엔), 홍콩(-89억 엔), 싱가포르(-69억 엔) 등이었음

###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6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7월 22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19년 10-12월	2020년 1-3월	2020년 4-6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3	0.7	-1.9	-0.6					
<개인소비> 소비종합지수(실질)	0.1	0.1	-3.0	-0.8		-3.5	-7.1	0.2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3.9	-5.8	-9.5	-5.7		-9.3	-7.8	-21.2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6.5 -9.4	86.3 -9.9		90.5 -7.6	79.7 -12.9	80.7 -12.3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3.9	2.5		8.0	6.0	9.9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3.8 -4.5	-5.5 -7.0	-25.1 -4.8	-11.2 -2.5	-21.3 1.5	P -27.3 P -14.5	P -27.1 P -0.8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6.8	-4.5		-5.2	-15.0	-26.3	
<법인 경상이익>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4.6	P -32.0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2,211 6.8	2,164 12.9	1,837 -11.4	740 11.7	743 15.1	314 -54.8	780 6.2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3	2.4		2.5	2.6	2.9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0.2 0.5	0.6 0.5	P -2.2	-0.4 0.4	-2.4 0.1	-2.8 0.1	-1.6
<금융> 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3,041 108.72	21,808 108.79	20,784 107.61	18,974 107.29	19,208 107.93	20,543 107.31	22,486 107.56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6월 및 7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5월에 전월 대비 0.2% 증가함
- 실질고용자소득은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는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
- 선택적 지출은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5월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간 이동의 자숙요청이 해제되기도 해서 6월 중순 국내 여행에 회복의 조짐이 보임
- 신차판매대수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하락이 멈추고 있음
- 외식은 많은 업체에서 매출액의 전년 대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어 최근 회복되고 있음
- 가전판매는 특별정액급부금 등의 정책효과도 있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되고 있음
- 향후 감염확대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개인소비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 설비투자는 최근 약세 기조를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季報’ (1-3월期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1-3월期는 전기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1% 증가, 비제조업이 7.0% 증가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6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에서는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감소, 전체산업에서는 증가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과잉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최근 약세이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가 불투명하는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5월에 전월 대비 1.30% 증가하여 연율 환산으로 80.7만호가 됨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감염증 영향에 따른 거래 억제도 있어서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회복의 움직임도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건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 5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2.3% 증가, 6월의 공공공사 하청금액은 전월 대비 4.2% 증가, 5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9.7%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건조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 있지만 하락이 점점 멈추고 있는 상황이며, 수입은 최근 하락이 멈추었고,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됨
  - 수출은 감염증 영향은 남아 있지만 하락이 점점 멈추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쪽 수출은 하락이 점점 멈추고 있고, 미국 쪽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EU 쪽 수출은 완만히 감소하고 있고, 기타 지역 수출은 급감하고 있음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을 살펴보면, 6월의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동월 대비 99.9% 감소함
  - 수입은 최근 하락이 멈추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약세 상태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적자임
  - 6월의 무역수지는 적자였지만, 전월의 적자에 비하면 감소하였음

####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종합적으로 보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회복의 조짐도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5월에 전월 대비 8.9%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5월에 전월 대비 2.5%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6월은 전월 대비 5.7% 증가, 7월은 전월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대폭 감소하였지만 최근 회복 조짐이 보이고, 생산용 기계는 감소하였고,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는 대략 보합 상태임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소가 멈출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크게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도산 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임

- ‘법인기업통계季報’ (1-3월期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3월期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32.0% 감소, 전기 대비 11.6% 감소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전년 대비 제조업이 29.5% 감소, 비제조업이 32.9% 감소로 나타남
  - 규모별로 전년 대비 대·중견기업이 42.0% 감소, 중소기업이 11.5% 감소로 나타남
  - 일본은행 6월 短觀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6.4%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1.4% 감소가 예상되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29.6%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7.7%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조짐이 보임
  - 도산 건수는 증가 추세로 5월 314건, 6월 780건이었고, 부채총액은 5월 819억 엔, 6월 1,288억 엔이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완전실업률은 5월에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하여, 2.9%로 됨
  - 노동력 인구,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함
  - 고용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고, 신규 구인 수도 대폭 감소하였지만, 최근 하락이 멈추는 조짐이 보임
  - 유효구인배율은 대폭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도 대폭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감소하고 있음
  - 일본은행 6월 短觀에 따르면 기업들의 고용인원 판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해지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과잉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사회경제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음

#### [물가 및 금융]

- 국내 기업물가는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상태임
- 6월 국내 기업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0.6%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대략 보합 상태임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 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6월에는 전월 대비 0.8% 포인트 하락하여 71.5%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권내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저-엔고-엔저 추세를 보임
  - 주가는 22,400엔 대에서 21,900엔 대까지 하락한 후 22,900엔 대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22,700엔 대로 하락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6엔 대에서 107엔 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다가, 106엔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7엔 대까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6% 대에서 -0.01%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 대비 6.5%(6월) 증가함
  - 6월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7.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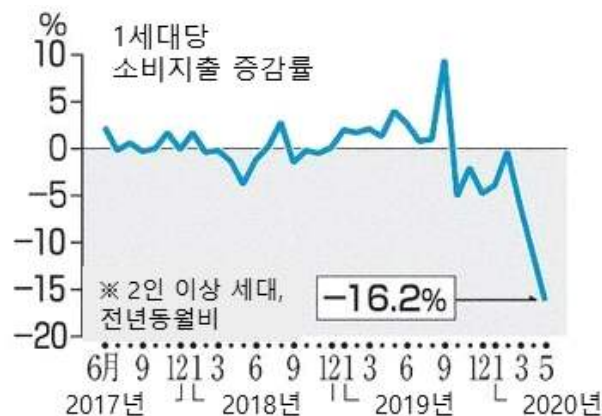
#### □ 일본 정부의 2020년 7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7월 22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에 노력하면서,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COVID-19 및 각종 재해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함
  - 감염증 확대 방지와 경제활동의 단계적 상향이라는 양쪽을 동시에 추구함
  - 점점 심각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 생활, 고용, 사업을 지켜나갈 것임
  - 감염증 확대로 인한 과제를 극복한 후 새로운 미래에서의 사회경제 모습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새로운 일상’을 통한 질 높은 경제사회의 실현을 추구함
  - 이를 위해 7월 17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위기의 극복과 새로운 미래로’, ‘성장전략 실행계획’ 등을 각의(閣議)에서 결정함
  -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4월 20일 각의 결정) 및 제2차 보정예산(5월 27일 概算 閣議 결정, 6월 12일 국회에서 성립)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실행함
  - 국내외 감염증 상황 및 경제 동향,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함
  - 7월의 호우에 따른 피해자의 생활과 생업의 재건을 위한 대책 패키지를 신속하게 마무리함
-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
  - 일본은행은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함
  - 금융시장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동향

- 총무성이 발표한 5월의 2인 이상 세대 가계 조사에 의하면, 1세대 당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비 16.2% 감소했음(마이니치신문, 20.7.7)



- 1세대 당 소비 지출은 25만 2,017억엔으로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에서는 전년 동월비 16.2% 감소했음
  - COVID-19 감염 확대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에 수반해 외출 자숙이나 영업 중지가 계속되었던 것이 영향을 주었음
  - 경제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한 6월은 악화 추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개인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일본정부는 마스크와 알코올 소독액 등 중국에 집중된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기업 등에 모두 700억 엔 가량을 보조하기로 했음(NHK, 20.7.17)
  - COVID-19 감염 확대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마스크 등의 조달이 막혀, 특정국에 생산 거점이 집중되는 것의 리스크가 부각되었음
  - 생산 거점을 분산시켜 서플라이 체인의 강화로 연결하려는 것임
- 일본정부는 22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재개를 향해서 중국, 한국, 대만 등 12개국·지역과의 교섭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음(닛케이신문, 20.7.23)
  - 일본정부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상 중임
  -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와 협의를 시작하는데, 모두 COVID-19 감염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일본과의 경제 측면 등의 관계도 깊음
  - 일본정부 대책본부는 일본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음
  - 왕래 재개에 관해서는 일본 내 감염 상황이 교섭의 벽이 됨



-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에 감염 방지 대책을 다시 철저하게 해달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요구할 생각을 나타냄(아사히신문, 20.7.26)
  - 니시무라 대신은 기업에서의 텔레워크 대치가 한때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꼭 텔레워크를 되돌리지 않고, 시차 출근도 합쳐서 다양한 근로방식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4월에 긴급사태 선언에서 직장에서의 출근자를 70% 삭감하는 것 등을 기업에 요청했고, 선언을 해제한 5월 25일에는 기본적 대처방침으로 계속 70% 삭감을 목표로 하는 것을 포함해 텔레워크 등의 추진을 내걸었음
- 일본 정부는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2020년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마이너스 4%대 중반으로 전망했음(닛케이신문, 20.7.29)
  - COVID-19 감염 확대로 인해 연초에 각의 결정한 전망(플러스 1.4%) 보다 큰 폭으로 하부 수정 함
  - 21년도의 실질 성장률에 대해서는 플러스 3% 중반으로 보는데, 감염 확대의 방지와 경제활동과의 양립이 진행됨으로써 경기는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내건 ‘20년경 명목 GDP 600조엔’ 목표는 달성이 2023년경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일본 국내외 감염자가 다시 증가 추세가 되고 있어, 감염 확대를 막지 못하면 경기 침체는 현재 전망 이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18년 10월에 경기 확대가 끝나고, 그 다음 달부터 후퇴 국면에 들어갔다고 인정함(아사히신문, 20.7.30)
  - 내각부의 유식자 회의 ‘경기동향지수 연구회’가 통계의 움직임을 기초로 최근의 ‘경기의 산’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론에 따라 내각부가 2018년 10월을 ‘산(피크)’이라고 인정했음
  - 일본 정부는 코로나 위기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해 2월까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였으나,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봄부터 이미 산을 넘었다는 의견이 확산됐음
  -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이번 경기 확대는 전후 두 번째로 길었지만 과거의 호경기와 비교하면 성장률이나 임금의 성장이 작아 실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음
- 국제적인 분쟁에의 대응 강화를 위해 외무성은 ‘경제분쟁 처리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정을 발표(NHK, 20.7.31)
  -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간의 대립 등을 염두에 두어 무역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
  - 일본은 현재 인도와도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외무성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경제분쟁처리과를 만든다고 발표함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6월의 유효구인배율(계절 조정치)은 1.11배로, 1.20배였던 지난 달보다 0.09포인트 떨어졌음(산케이신문, 20.7.31)
  -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14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의 수준을 기록함
  - 총무성이 발표한 6월의 완전 실업률(계절 조정치)는 2.8%로 지난 달보다 0.1포인트 개선되었음
  - COVID-19 감염 확대에 따른 고용 정세 악화 영향이 계속되었음

##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 결성 출범식(아사히신문, 20.7.3)
  - 한일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28개 단체가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결성해 2일 출범식을 열었음
  - 서울과 도쿄의 기독교 시설 등을 온라인 회의 시스템 Zoom으로 연결해 약 50여명이 참가함
  - 한일 공동대표들이 출범 선언을 낭독하였음
- ‘2020 한일 관계 심포지엄’ (주오사카 한국 총영사관 주최)이 오사카시 기타구에서 개최되었음(마이니치신문, 20.7.5)
  - ‘일본 내의 한류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주제로 양국의 대학 관계자들이 논의하였음
  - 약 70명이 참가하여 심포지엄 전반에는 한국의 문화전략과 일본의 한류 역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강연했음
  - 후반에는 대학 관계자 등 7명이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서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불건전하다, 대립적이 아니고,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통항에서 생각하고 싶다 등의 의견이 나왔음
- [사설] 세계유산 갈등, 부정적인 역사 바라봐야(아사히신문, 20.7.9)
  - 5년 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에 관한 전시를 놓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있음
  - 전시 징용공들의 설명에 대해 일본 측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등재 당시 일본정부 대표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의사에 반해 끌려와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던 많은 한반도 출신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시설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에 두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나타냈었음
  - 올해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그 시설에 해당되지만 전시물 일부에 한국 측이 반발하고 있음
  -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당시에 대한 증언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군함도로 불리는 나가사키현 하시마섬에 있던 탄광 원주민들이 한반도 출신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인터뷰가 나왔음

- 당시를 아는 사람들은 증언이 값진 가치를 갖는 것은 물론이지만, 개별적인 체험의 증언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역사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없음
  - 한반도 출신자의 노무동원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나 혹독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당시 일본정부의 공문 등을 통해 밝혀졌으며 일본의 재판에서도 피해사실은 인정되고 있음
  - 그런 사실도 충분히 설명하고 당시 국책의 전체상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시의 모습일 것임
  - 세계의 기억(구 기억 유산)은 당사자 간에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제도로 바뀌었음
  - 메이지 이후 일본은 많은 노력과 희생 위에 눈부신 공업화를 이루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유산의 빛은 시들해짐
- 돗토리현과 우호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4개국의 지방정부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제교류·협력 지방정부 서밋’ 이 금년은 COVID-19 영향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정해졌음(산케이신문, 20.7.23)
- 올해 25번째 개최 예정이었으며, 개최 유보는 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영향으로 이듬해로 연기된 2003년 이후 두 번째임
  - 서밋을 구성하는 것은 돗토리현, 한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지방, 몽골 중양현 등 5개 지방정부임
  - 국제 교류의 적극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1994년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각 지역을 순환하면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음

##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SEAJ)는 2020년 일본제 반도체 제조장치의 판매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2조 2,181억엔이 될 것으로 예상했음(닛케이신문, 20.7.2)
- 텔레워크 등의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밀 받침한다고 보고 있으나, 미중 마찰 악화는 반도체 제조장치 출하에 있어서 역풍이 되기에 앞으로 불투명한 부분도 많음
  - COVID-19 감염 확대 영향으로 1월에 발표한 2020년도 예상으로는 130억엔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최종 제품 생산이 줄면서 서플라이 체인도 혼란을 겪었기 때문임



- 텔레워크 보급과 온라인 서비스 확대는 침체됐던 메모리 수요를 크게 회복시키고 있음
  - 고속 통신 규격인 5G의 실용화도 반도체 메이커의 설비 투자를 지지해 21년도 이후도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SEAJ는 보고 있음
  - 향후 불확정 요인은 COVID-19의 영향인데, 해외 도항의 제한으로 엔지니어를 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하는 것이 각사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음
  - 미중 마찰 악화로 각국 반도체업체들이 투자를 억제하게 되면 판매 확대 예상이 쉽게 뒤집히므로, 반도체 제조장치 각사는 COVID-19와 미중 관계 양쪽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은 기후현의 자회사 파제로(Pajero) 제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음 (NHK, 20.7.27)
- 실적이 부진한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은 재건을 위해 국내 생산체제를 재검토하고 기후현에 있는 자회사 파제로 제조공장에서의 생산을 내년 6월 말까지 중단한 뒤 폐쇄하기로 함
  - 이 공장은 미쓰비시 자동차의 국내 3개소의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국내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었음
  - 종업원들은 배치 전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예정임
- 후지필름홀딩스는 미국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만드는 원약의 생산능력 증강을 발표했다(닛케이신문, 20.7.28)
- 후지필름은 미국 정부로부터 백신 생산 보조금을 획득했으며, 이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미국 노바백스로부터 주문받은 원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어 텍사스 주의 공장에서도 원약을 생산함
  - 백신은 기초연구에서 제제화(製劑化)까지를 제약사가 일관되게 진행하는 대표적인 수직통합형 의약품인데, 이는 품질관리 등에 더해 매년 수요를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생산체제 자체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임
  - 반면 COVID-19 백신은 개발과 생산을 서로 다른 기업이 담당하는 수평분업형이 추진되는데, 미지의 바이러스를 다루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을 전용하는 것이 어렵고, 새로운 증산 설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임
  - 제약회사에 있어서는 수요가 급증하는 코로나 백신의 개발 스피드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음
  - 수평분업은 반도체나 전자기기 산업에서 활용되어 왔는데, 의약품에서도 연구개발의 난이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신흥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과제는 증감산의 유연성이 부족한 점인데, 백신은 특수한 배양설비 등이 필요해 갑작스러운 생산능력 변경에 대응하기 어려움

- 일본 국내 조선 8위인 미쓰이E&S홀딩스와 4위인 쓰네이시홀딩스가 조선 사업에서 자본을 제휴하는 협의에 들어감(닛케이신문, 20.7.31)
  - 1위인 이마바리조선도 2위인 저팬마린유나이티드(JMU)에 자본 참여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어 생존을 위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쓰이E&S와 쓰네이시의 상선 건조량을 합치면 가와사키중공업을 제치고 3위 연합이 됨
  - 두 회사는 2018년부터 상선 설계 및 부품 조달 등에서 업무 제휴를 맺고 있으며, 쓰네이시의 자본 참여로 상선 일괄 수주 등 조선사업 공동운영까지 제휴관계를 확대함
  - 대형 조선업체들은 한·중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미쓰이E&S와 쓰네이시가 자본제휴 협상에 들어가면서 조선업계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대한 수출규제가 1년, 한일 기업들의 부담만 커졌음(아사히신문, 20.7.2)
  - 일본 정부가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음
  - 전 징용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압력’이라고도 지적된 조치였지만 한국 측은 움직이지 않아 한일 기업들의 부담만 커졌음
  - 일본이 수출 절차를 엄격화한 것은 스마트폰 등의 화면에 사용하는 불화 폴리이미드,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레지스트와 불화수소임
  - 이 중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불화수소인데, 일본 국내 불화수소 제조 대기업 2사는 작년 말까지 허가를 얻어 수출을 재개했지만 각각 절반 정도와 30% 가깝게 줄어들었다고 함
  - 규제 강화로 당초 한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지적됐으나, 한국은 다각화와 국산화를 시도했음
  - 다만 한국 국산화에는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개발 후에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산면의 문제를 남기고 있음
  - 한국의 재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은 한국으로부터의 이익을 잃고, 한국은 국산화나 다각화의 계기를 얻었지만 기업은 예상외의 코스트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함
- 한·일 수출관리 엄격화가 1년이 되었으나 협의는 정체되고 갈등이 심화됨(요미우리신문, 20.7.4)
  -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재료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협의는 정체된 가운데 6월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갈등은 더욱 깊어졌음
  - 한일 무역문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에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시 일본 정부에 신청을 의무화한 것이 계기가 되었음
  - 반발한 한국은 WTO에 제소했지만, 일단 수속을 중단하고 양국간 대화노선으로 돌아섰고, 지난해 12월에는 무역당국의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반 만에 개최되었음

- 그러나 한국의 WTO 수속 재개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음
  - 분류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첨예화가 깔려 있는데,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공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일본 정부에 있어서 수출관리 엄격화는 안보 문제이지만, 징용공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국에 행동으로 알리려는 목적도 있음
  -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관련 품목 국산화 추진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련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도소(東ソー)는 브롬의 생산을 30% 늘리고, 한국에 실리카 공장을 건설함(닛케이신문, 20.7.24)
- 도소가 기능성 화학품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잇달아 내놓았음
  - 도소 난요사업소(南陽事業所)에서는 브롬의 생산을 30% 늘리는데, 100억엔을 투자해 노후화된 제조설비를 갱신하고 2023년 1월에 운전을 개시함
  - 브롬은 난연성이 있어 반도체 기판이나 살균제 등에 첨가됨
  - 자동차 대상으로는 자회사의 도소·실리카(도쿄·미나토구)가 한국 남부의 여수시에 서 저연비 타이어에 사용되는 실리카의 생산 공장을 설립함
  - 한국의 남해화학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도소가 67%를 출자하고 신공장은 21년 10월 가동 개시를 예정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요구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승인했음(산케이신문, 20.7.29)
- WTO의 분쟁처리기관(DBS)은 일본정부가 작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의 반도체재료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해 한국이 요구한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승인함
  - 심의는 2심제로 진행되나 WTO는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결원이 나와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어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WTO 분쟁처리는 당사국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패널을 설치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
- 이토츠테크놀로지(CTC)가 한국 대형 IT기업인 메가존의 미국법인과 자본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닛케이신문, 20.7.30)
- CTC는 메가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를 일본에서 개시함
  - CTC가 판매를 시작하는 것은 AWS의 코스트 관리나 운용 자동화를 지원하는 Hyper 시리즈,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Space One,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CDN)를 관리하는 Cloud Plex 등이며 향후 메가존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의향임
  - 이 외 CTC는 메가존과 공동으로 일본 및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신서비스 공동 개발도 진행함



### III. KJCF & KJE News

#### □ 「2020년 모노즈쿠리 인재양성 국내연수」 모집안내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재부품 중소기업 제작자
- 지원규모 : 차수별 21명씩(1사당 1~3명 지원 가능)
- ※ 1사당 1차 : 3명 / 2차 : 3명으로 총 6명 신청 가능
- 연수일자 및 장소 :
  - 1차 : 2020. 9. 23(수)~25(금) / 경기도 시흥시 연수원
  - 2차 : 2020. 10. 14(수)~16(금) / 경북 칠곡군 팔공산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
- ※ 연수 전 일정 숙박 / 출퇴근 불가
- 기업부담금 : 1인 15만원(2박3일)
- 지원내용 : 숙박비, 식비, 실습비, 교재비 등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2. 연수일정

구분	일차	내 용
국내 과정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li> <li>• 강의 모노즈쿠리의 기초 개념(화상강의) : 도표대학 후지모토 다카히로 교수</li> <li>• 실습 I-1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모의라인 : 로트/개 흐름 생산방식</li> </ul>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 I-2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모의라인 : 개선티그 제작 및 개선결과 적용</li> <li>• 실습 II-1 제조기업 실제 현장개선 견학① : QCD 현장개선 과제 발굴</li> <li>• 실습 II-2 모노즈쿠리 관리기법 트레이닝 : 팀 토론을 통한 견학기업의 현장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안) 제안서 작성</li> </ul>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 II-3 제조기업 실제 현장개선 견학② : QCD 현장개선 과제 발굴</li> <li>• 실습 II-4 모노즈쿠리 관리기법 트레이닝 : 팀 토론을 통한 견학기업의 현장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안) 제안서 작성</li> <li>• 실습 II-5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보고서 발표(팀별)</li> </ul>

#####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8월14일(금) ~ 8월 28일(금)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www.kjc.or.kr](http://www.kjc.or.kr) → '재단활동(모집안내)' → 2020년도 모노즈쿠리 인재양성(국내 연수)참가 모집 → 하단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신청 시 차수 선택)
  - ※ 여러 명이 참가하는 경우 참가자 정보 하단 "+" 클릭
- 제출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제출
- 접수 확인 안내
  -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완료(번호)가 전송
  - ※ 메일을 받지 못 하였을 경우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요청
- 서류 수정 방법
  - 신청서 수정 시 참가자 메일로 전송된 접수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참가 신청하기 ⇨ [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64](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64)

#### □ 「2021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사업」 상반기 참가신청 안내

##### 사업목적

일본 우수 퇴직기술자를 초청하여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 관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사업대상 : 중견·중소기업(제조업 전업종 30% 이상, S/M 업체 포함) 약 40개사
- 사업내용 : 일본 기술자를 초청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지도 실시 (온라인 원격지도 병행도 지원)
- 지원분야 : 제조업 생산기술 전 분야

① 금속기계가공	⑤ 조립·자동화	⑨ 전기·전자부품·IT·재료
② 프레스금형	⑥ 설계·개발·계측시험	⑩ 환경·에너지·섬유·식품
③ 화학·고분자·고무·합성수지	⑦ 열처리·표면처리	⑪ 경영지도·생산최적화
④ 성형·주조·단조	⑧ 설비·장비·플랜트	⑫ 기타 생산기술

- 지원기간 : 2021년 1월~8월(최대 6~8개월) \*지원과제 유형 등에 따라 차등

##### 매칭상담회

- 개최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09:30~18:00
- 개최장소 : 롯데호텔서울(소공동) 2F 크리스탈볼룸
- 참가대상 : 기술자 발굴의뢰 기업 중 사전매칭이 성사된 기업 약 40개사
- 상담형태 : 일본 기술자와 1:1 상담
  - ※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온라인 원격 화상상담회로 대체하여 개최
- 참고사항 : 상담 기술자 초청비용(항공·숙식) 및 상담통역 등 지원

#####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kjc.or.kr](http://www.kjc.or.kr))>재단활동>모집안내>「2021 일본우수퇴직 기술자 기술지도사업」 참가신청>하단의 배너, 또는 기술자검색사이트 ([http://kjc.or.kr/instructor/business/business\\_05.jsp](http://kjc.or.kr/instructor/business/business_05.jsp)) 이용
- 2020년 9월 11일(금) 18:00까지 신청접수

※ 제출 후, 3일 내 접수확인 메일을 못 받으신 분은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하기 ⇨ [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62](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62)

####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 메루카리의 성장 궤적과 향후 전략(2020-08-07)
- 변화하는 제약임상시험이 바라는 역할과 CRO의 장래(2020-07-30)
- 일본 초고효율공장의 실력 : 가시화된 4가지 패턴(2020-07-20)
- 코로나19 확산과 일본의 외국인 노동정책의 과제(2020-07-16)